

희림개발... 김충섭 김천시장도 눈감아주나?

희림개발, 김천시 행정위에 군립 불법 축척도 눈·귀 닫고 모르쇠
 제보자, 불법영업 김충섭시장에게 5차례 알렸지만 묵살당했다 분개 주민들, 시와 유착관계 의혹 제기

김천시의 행정이 '안하무인격'이다. 희림개발의 불법 골재채취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김천시는 눈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김천시의 바주기 의혹 행정이 희림개발의 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희림개발은 김천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영업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결국 시의 탁상행정이 무허가 골재채취업자만 배불리게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희림개발의 불법 영업을 고발한 제보자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찾아 불법 사실을 5차례나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보자는 "수 차례에 걸쳐 김천시에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김천시 관계자가 희림개발측에 영업중지를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계속 공장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희림개발은 김천시 행정위에 군립하는 업체라"고 독소를 날렸다.

인근 주민들은 김천시와 골재채취업체 간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김천시 옹호리 주민이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옹호리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자님 밤에도 시청 직원들 눈을 피해서 투광등을 틀다 공장을 가동 중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잠을 못자게 하고,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는데, 한국전력은 농지 위에 무허가로 허가가 만료된 무허가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봤을때 유착관계가 깊이 의심을 과중되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사용 전기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저런 공장은 한국전력은 불법인데 제재를 안하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기자님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 주고, 옹호리 주민을 위해 고생하는 기자님 수고하세요"라고 제보했다.

현재 희림개발은 1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김천시는 아직 명확한 처리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사진은 추석 연휴 기간 울릉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

'46년만의 물폭탄' 울릉... 피해복구 구슬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복구 지원 경북도, 재난 예방 복구 최선 다해

경북도는 지난 11.12일 이틀간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누적 강수량 308.4mm를 기록한 울릉군 일대에 경북안전기동대를 파견해 피해복구를 지원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33명의 대원을 파견해 폭우로 무너진 산비탈 토사 제거, 천막 덮기, 나무 절단, 물길 변경, 공영주차장 지하 기계실 배수 작업, 뿔 제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공장상가 산비탈 위 마대를 쌓고 배수로 흙 막힘 제거 작업을 지원했다. 또 1t 탑차, 고압세척기, 기계톱 등 자체 장비들을 활용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피해가 큰 도동 인근 모텔로 출동해 3일 동안 내부의 토사와 자재 폐기물을 제거하고 뒤편 산비탈 나무 절단, 물길 변경 작업을 했다.

도동 공영주차장에서는 지하 기계실 배수로 작업과 개흙 제거, 배수로 흙 막힘 등을 처리했다.

도동리 전기 공장 내 컨테이너의 뿔을 제

거하고 내부 물품, 장비를 철거하고 사동리에서는 상가 뒤편 산비탈 나무 절단 및 천막 덮기, 울릉자생식물원 내 물길 변경 작업, 마대 쌓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4-5일 차에는 행남 등대 아래쪽 인근 상가 뒤편과 계곡 도랑의 토사 및 자재 제거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고 5일간 도맡았던 작업 장소까지 마무리해 인근 주민들의 칭찬 세례가 이어졌다.

울릉군은 남진복 도의원과 함께 복구현장을 방문해 안전기동대원들을 격려하고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폐현 재대원 134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망·도배전·가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한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다.

2022년 포항 태풍·한남노 피해복구 활동 및 집수리 지원 총 18회 645명, 지난해 경북 북부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총 14회 583명이 출동하는 등 14여 년 동안 민관협력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생업을 뒤로 하고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기동대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난 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사진은 추석 연휴 기간 울릉에서 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

홍준표, "신공항 건설 때법 더 이상 용납 안해"

경북도 의성군 10월 말까지 국방부 제시한 안 수용해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의 신공항 건설 방향에 따른 의지는 강경태세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때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TK신공항 건설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 10월 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간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로 분쟁이 있는지 1년이 다 됐고,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랜B가 가동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의성군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플랜B'는 TK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부지 대신 군위군 우보면에 건설하는 것이다.

의성군 일부에서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등을 놓고 반발하자, 홍 시장이 '집단지성'이라며 '플랜B'를 꺼내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신공항특별법에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이전이 못박혀 있어 그 조건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플랜B인 군위군 우보면으로 공항이 가려면 법을 바꿔야 하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여은 기자

칠곡군 "홍 시장 정치 목적...군부대 유치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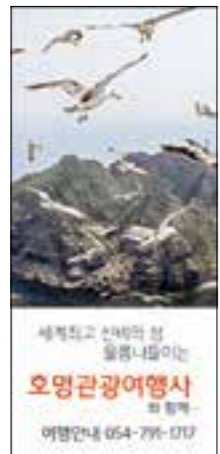
홍, 정치적 목적 군부대 이용 도민 우롱 행위 '중단' 성토

경북도는 지난 11.12일 이틀간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누적 강수량 308.4mm를 기록한 울릉군 일대에 경북안전기동대를 파견해 피해복구를 지원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33명의 대원을 파견해 폭우로 무너진 산비탈 토사

제거, 천막 덮기, 나무 절단, 물길 변경, 공영주차장 지하 기계실 배수 작업, 뿔 제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공장상가 산비탈 위 마대를 쌓고 배수로 흙 막힘 제거 작업을 지원했다. 또 1t 탑차, 고압세척기, 기계톱 등 자체 장비를 활용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피해가 큰 도동 인근 모텔로 출동해 3일 동안 내부의 토사와 자재 폐기물을 제거하고 뒤편 산비탈 나무 절단, 물길 변경 작업을 했다. 정윤환 기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울릉도·독도는 오영관광여행사

단체장 일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2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동구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3일 오전 군수실에서 열리는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업무협약식(화원고)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제1회 11th Chilgok Nakdong River Peace Festival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제15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2024. 10. 04(금) - 2024. 10. 06(일)
 칠곡보생태공원 및 왜관시가지

<p>10.04(금)</p> <p>군문화 공연 전통 개악서 축하공연 유재민아트시어터 신포서</p> <p>10.05(토)</p> <p>유재민 아트시어터 제 2회 어린이 평화 콘서트 군문화 공연 피스 음악회 with 힐레</p>	<p>10.06(일)</p> <p>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군문화 공연 힐곡 피스뮤지컬페스티벌</p> <p>전승전승행사</p> <p>군문화 공연 열기 축하 퍼레이드 최선군무기 전시 장갑차 탑승 체험</p>	<p>10.05(토)~10.06(일)</p> <p>개막식 205 레트로 콘서트</p> <p>힐링아시장 거리예술제 205 싱(sing) 페스타</p>
<p>칠곡보생태공원</p> <p>YB, 은가은, BewhY, 김태우, 김창원밴드, 구창모, 슈빅밴드</p> <p>STANDING EGG, 옥상달빛, 군문화 공연, 열기 축하 공연, 최선군무기 전시, 문교 합승 체험, 열기 합승 체험</p>	<p>왜관시가지</p> <p>비스타, 스텔리스 에이, 배거형, 구수민</p>	

주최 | 경상북도, 칠곡군, 대한민국 국방부 | 주관 | 칠곡문화관광재단, 제205연사령부

동구 불봉이 · 도평동 민간사회안전망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과 도평동 민간사회 안전망위원회는 지난 20일, 도평동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이 집수

리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도평동 민간사회안전망이 공사 자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찢어진 방충망 교체, 풀이 무성한 진

입로에 친환경 매트 설치, 손상된 벽지 부분 도배, 뽕뽕한 문수리 등을 했다.

김석남 이사장과 김지훈 위원장은 "이웃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행복하게’, 2024 수성못페스티벌 개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양한 예술적 경험 선사 예정

수성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성못페스티벌이 9월 마지막 주말 대구 시민을 찾아간다.

수성문화재단은 '2024 수성못페스티벌'을 대구 대표 관광명승지인 수성못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성못페스티벌은 '함께, 행복하게'란 슬로건 아래 대구시민뿐 아니라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새롭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상화동산, 수상무대, 남편 포켓무대, 울루루문화광장, 빛나무길, 들안길 수성못 둘레 전역에서 각종 무대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인 27일 우리 전통음악과 관현악, 대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퓨전국악 콘서트'로 축제의 막을 연다.

미스트롯2 진(眞) 양지은, 씽씽밴드에 출연해 한국 민요를 전 세계에 알린 소리꾼 이희문이 영남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신명 나는 우리의 가락을 선보인다.

28일 낮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이 주인공 행사가 열린다. 수성구 미술가협회와 주관하는 '수성못 사생실기대회'와 지역 23개 학교가 참가하는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 청소년 한 마당'은 오후 1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같은 날 저녁, 수상무대에 열리는 'B.O.A.(Best Of Artists in Daegu) 콘서트'는 모노폴로와 프리소울, 재즈 보컬리스트 정은주, 가수 한강 등 대구 출신 뮤지션이 출연, 팝·재즈·클래식·전통 가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으로 시민들을 맞는다.

또 상화동산에서는 온 가족이 영화와 함께 청명한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코코'를 450인치 대형스크린으로 상영한다.

끝으로 29일에는 지역 아마추어 및 전문 연주자, 시민합창단, 오케스트라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대합창 공연 '수성행복콘서트'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일반 시민과 예술가 600여 명이 울해 수성못페스티벌 슬로건인 '함께, 행복하게'를 주제로 한 편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상무대에서는 수성구청소년오케스트라와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수상음악회' 공연이 있다.

무대공연 외에도 수성못을 찾은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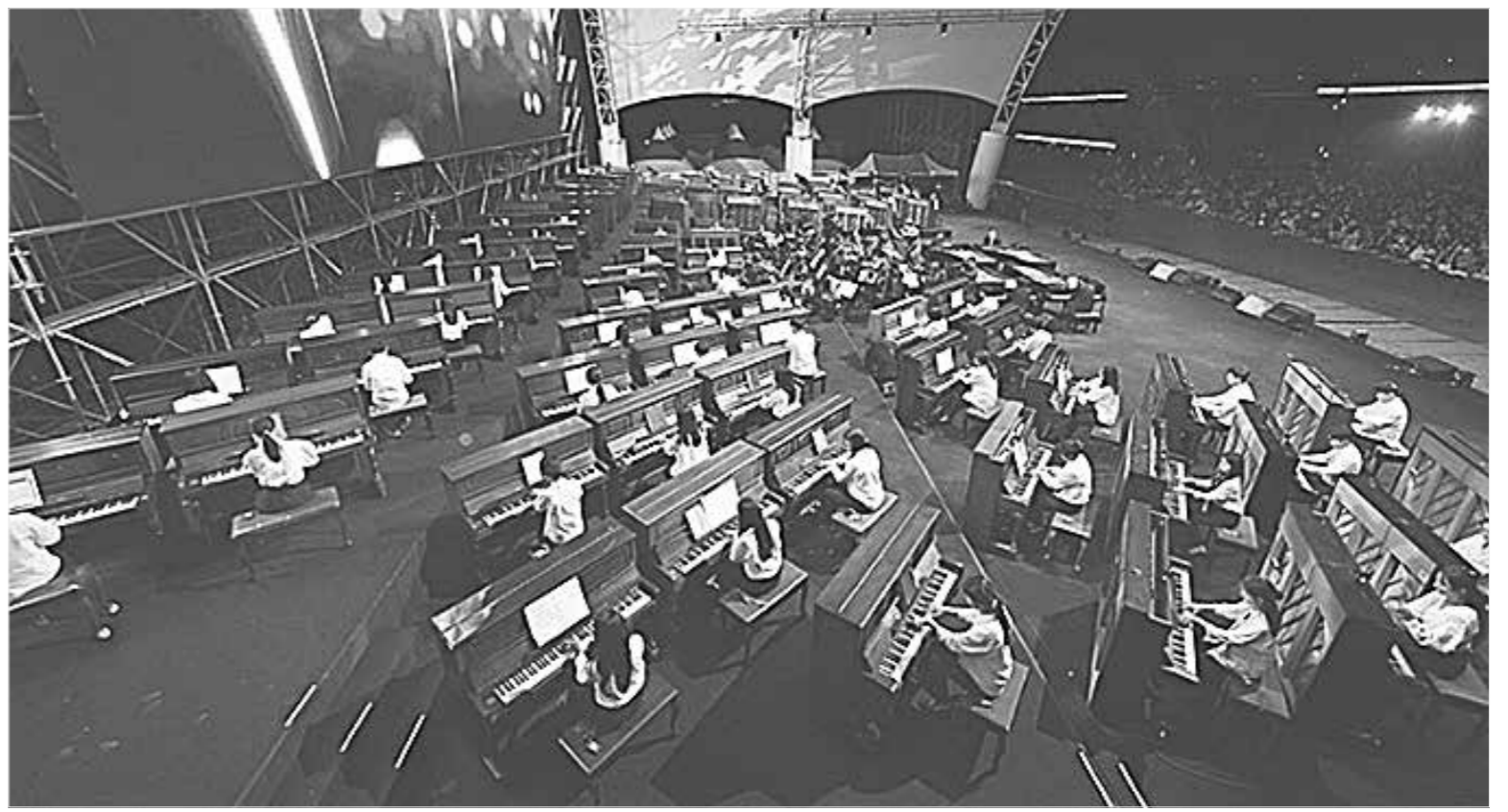
특히 축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진행되는 '음악 불꽃쇼'는 수성못에서 유일하게 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성못을 찾은 시민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수성못 남쪽 포켓무대에는 전문거리 예술팀의 시간대별 거리공연과 '수성맛집 뽕축제', 수성호를 앞쪽 빛나무길에서는 들안예술마을 작가들이 직접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들안아트마켓'과 수성구 캐릭터 터비 공연이 진행된다.

또 수성못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차량 통행이 통제된 들안길에서 진행되는 들안길포드페스티벌은 들안길 맛집 50여 곳의 음식을 한자리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드레스토랑을 이용한 다음 음모할 수 있는 메인 이벤트 '금수저를 잡아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축제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수성못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ssfestival.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개최... 피아노 선율로 물드는 가을밤

오는 28일 오후 7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2024 달성 100대 피아노'가 열린다.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출연진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와 아마하 뮤직 코리아(주)가 후원하는 지역 대표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는 단 하루만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예술감독으로 내세워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정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실력파로,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박듀오'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 그리고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최이삭이 파티 리더로 참여하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6인의 피아니스트와 함께 '달성피아노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의 명곡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이 연주된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가수 박정현, 재즈 트리오 조윤성, 이상민, 박제신이 축제에 참여해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사한다. 유키 구라모토는 그의 대표곡을 통해 뉴에이지의 감성을, 박정현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재즈 트리오의 자유로운 재즈 선율로 가을밤을 물들일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포토존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뜻지리석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은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달성문화재단 최재훈 이사장은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달성 100대 피아노가 앞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이번 '달성 100대 피아노'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지역응급의료시설 운영...추석 연휴 의료 공백 해소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총 477명에 소아환자 235명 공공·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 협력해 역할 충실히 수행



달성군은 추석 연휴간 의료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휴에도 24시간 응급진료지원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첫 맞이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성군은 지역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한 철저한 준비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휴 동안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역응급의료시설인 '행복한 병원(달성군 유가읍 소재)'은 유가·현풍 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달성군에서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관내에 응급실이 없어 공휴일 및 야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관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여과없었다.

의료 공백을 매우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총 477명의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 중 235명은 소아 환자였다. 응급실을 통해 신속하게 진료를 제공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병·의원이나 문을 닫는 연휴 기간 병원을 가지 못 해 자녀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인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협력하여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응급의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달성건강뽕뽕이를 운영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치매안심거리와 심뇌혈관 질환 안심거리를 지정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국내 최초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 개최

플러그앤플레이의 국내 최초 엑스포 10월 23일 엑스코 서관 1층에서 열려

대구시는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Plug and Play Korea Expo)'를 오는 10월 23일 엑스코 서관 1층에서 개최한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국내 최초 글로벌 기업박람회다.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청년들이여! 울로온나 대구로!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타지역청년의 대구 귀환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4 청년의 날 행사' 청년정책 박람회에 참여해 서울 여의도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대구의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전국 청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타지역 청년의 대구 귀환을 돕는 '청년 귀환 채널구축사업'과 생애 주기별로 청년을 지원하는 '대구청년 탄탄대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구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대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 전시회들을 통합해 글로벌 첨단산업 융합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박람회다.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는 FIX 2024 첫날 엑스코 서관 1층 스타트업 아레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에는 2024년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10개사 등 국내외 스타트업 총 25개사가 참여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또한 주요 행사 내용으로 조조 플로레스(Jojo

Flores) 플러그앤플레이 공동창업자, 스티브 던바 존슨(Stephen Dunbar-Johnson)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사장, 이주석 인텔코리아 사장, 이경수 세라젠 대표이사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그밖에 스타트업 IR(기업설명) 피칭, 페넬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윤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구시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 '희망의 북구' 노래 제작 발표

북구청은 북구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희망의 북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제작·발표했다.

이번 노래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곡했으며, 배광식 구청장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북구

나 따라 부르기 쉽고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동화천과 팔거천, 금오강, 함지산, 침산정 등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승지 및 상징물과, 웃음과 희망이 가득한 북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사에 담았다. '희망의 북구' 노래는 오는 28일, 29일 개최되는 금오강바람소리길 축제를 시작으로 모든 축제와 단체행사 등에 선보일 예정이다.

의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의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근절 당부



의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행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소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스타트업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영천시의회...군부대유치·산후조리비 등 논의

영천시의회는 20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등 20건을 논의했다.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과 K-U시티 주거환경조성 등 12건의 계획안, 선택예방

접종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8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

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K-U시티 사업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상지 선정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계명문화대,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선정

올해부터 2026년 3년간 총 30억원 사업비 지원

계명문화대가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은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고 앞장서는 전문기술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유형(신규 진입형), 2유형(고도화형), 3유형(폴리텍 연계형)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계명문화대는 1유형(신규 진입형)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계명문화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28대 국가신기술 디지털 분야와 대구시 5대 주력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AI와 대학의 강점인 디자인을 접목해 'AI활용 디자인 전문기'를 양성한다. 인공지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디자인 요구에 따른 AI활용 디자인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계명문화대학교는 기존의 '디자인학부'를 '디자인융합테크학부'로 변경했다. 디자인융합테크학부 내에 인테리어·제품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 전반적인 분야의 AI활용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AI산업디자인 전공', 브랜드기획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타투 그래픽 디자인에 AI를 접목, 창의적인 타투리스트를 양성하는 'AI타투디자인 전공' 등 3개 전공을 개설했다.

2025학년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디자인융합테크학부는 'AI와 디자인이 융합, 만들어내는 세상!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를 구호로 내걸었다. 지난 9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 가운데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전제하기 전역 장학혜택을 제공할 예정에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승호 계명문화대 총장은 "대구시 문화창조 산업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계명문화대학교의 AI를 활용한 디자인 융합 전문기술을 접목하

는 등 산업 요구를 반영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할 AI활용 융합 디자이너 양성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계명문화대 디자인융합테크학부장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AI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시티투어' 현장체험

경북학생·학부모 40명 대상 지역 문화예술 분야 운영

대구교육청은 21일 경북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구교육시티투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대구교육시티투어'는 대구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적 장소에서 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경북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구교육시티투어로 대구지역의 다양한 어제와 오늘을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인 대구와 경북의 교육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문화예술 △생태환경 △세계시민 △역사탐방 △창의융합 등 5가지 주제별 경로를 정해 오는 11월까지 10회 운영한다. 투어는 대구-경북교육청 교류증진사업에 따라 지역공동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 40명이 참여, 대구학생 예술창작터에서 대구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한다. 대구문화관, 마당깊은집, 향촌문화관 등을 방문, 지역의 문화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경로를 경험한다. △ 참여자들은 △사전 방문 장소 조사 △투어 당일 부여된 교육적 미션 수행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등 단계적 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쁨과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은 경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영상을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교육청,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차단...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구제 통합지원 협약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기관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전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관간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북경찰청과 협력, '스쿨사이렌 1호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 운영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두드림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약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주력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소방, 추석연휴 '119출동' 3607건...

각종 예방 대책 적극 추진 도민 생활 안전 크게 기여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 총 3607건의 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16.2% 줄었다.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48건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 동안 32건 출동한 것에 비해 47.3% 증가했다. 구조 출동은 566건에서 472건으로 약 16.7% 감소했다. 구급 출동은 3707건에서 3087건으로 약 16.8% 줄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 12건(25%), 부주의 10건(21%), 미상 10건(21%), 기계적 요인 9건(19%), 기타 7건(14%)이다. 발생 건수는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했다. 재산 피해는 2억2790만4000원에서 3억6979만6000원으로 1억4189만2000원 증가했다. 구조 출동은 교통사고 84건(19%), 산악사고 61건(13%), 승강기사고 21건(5%), 기타 292(63%)이다. 구급 출동은 질병환자 954건(31%), 교통사고 221건(7%), 사고부상 446건(14%), 기타 1466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상담을 총 2570건을 실시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지난해보다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값 하락폭 '전국 최대' ...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4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에 따르면 9월 셋째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8% 내려 2주 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세종(-0.04%)과 부산-경북(-0.0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셋째주(-0.01%)부터 시작된 내림세가 44주째 이어졌다. 매매가 하락은 남구(-0.12%) 북덕동과 이천동, 서구(-0.12%) 내당동과 비산동, 중구(-0.11%) 대봉동과 남산동에서 두드러졌다.

Advertisement for '농지연금' (Farmland Pension) by FBS. It features large stylized text '농지연금' and '지금 있다면, 금이 있습니다.' The ad lists benefits like '농지 소유권 100%에 대한 연금' and '농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and logos fo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and 'FBS'.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

내년 7월부터 경주에 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시는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 중이다.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중이다.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이동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대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8월 말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4만 2475명, 장애인 1만 6597명, 국가유공자 4565명을 모두 포함하면 6만 3637명이다.



추석 황금연휴 경주에 관광객 67만명 다녀갔다

황리단길 전체방문객 48% 차지
관광객 5000만 시대 '바로미터'

추석 연휴 경주는 나들이객들로 구름 인파를 이뤘다.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경주 주요 관광지에서 1일 평균 13만3886명, 총 66만9429명이 다녀갔다.

세부적으로는 △황리단길 32만417명 △대릉원 4만5531명 △봉황대 1만1012명 △첨성대 4만4818명 △불국사 2만7651명 등으로 집계됐다.

황리단길은 연휴 기간 전체 방문객의 48%를 차지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을 추억을 쌓았다.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옥에 개성 있는 상점과 음식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황리단길이 있는데다 인근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교촌마을 등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교촌 한옥마을에서는 오후 3시부터 신라오기

공연을, 6시부터는 전통국악부터 퓨전국악, 한국무용까지 아우르는 경주국악여행 특별공연의 진수를 선보였다.

동궁원에서는 느티나무 광장에서 버블쇼 및 풍선아트쇼를 비롯해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체험이 펼쳐졌다.

동궁과 월지 입장 전 '경주로ON' 방문 리뷰부제 공되는 무료입장권 이벤트는 방문객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선물했다.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서는 통기타, 트로트, 마술쇼, 비보이 공연을 포함해 민속놀이 경연대회, 즉석 노래자랑으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ESG 문화 캠페인, 풍선아트쇼 등의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 주차를 허용해 도심 곳곳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 1번지의 명성을 되찾은 추석 연휴였다.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경주로ON 등을 비롯해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관광객 5000만 시대를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석 연휴기간 동궁원에서 민속놀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5년 경주 세계유산 국가유산 홍보 원년의 해

경주시, 2025 국가유산활용
공모사업 15건 '선정' 쾌거

경주시가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한 2025년 세계유산 및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총 15건이 선정돼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유산야행, 경주읍성 생생나들이, 상상더하기 월성해자, 선비고을양동 등으로 나뉜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석굴사원의 천년미소 '마애')과 지역국가유산 교육 활성화사업(상상더하기 월성해자),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황룡, 전통등과 함께 날아들다) 등 3건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천년미소 마애 프로그램은 최근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골굴사에서 산사인문학 강의와 석굴사원 테마 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학교 및 아동센터에서 펼쳐질 상상더하기 월성해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국가유산체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해 연중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홍보는 물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분야 시설지원이 아닌 순수한 문화유산 활용·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생동감 넘치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 방법은 각 프로그램 주관단체와



사진은 지난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마당극 모습

협의해 내년 초 경주시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내년을 경주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홍보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전달할 것"이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세계유산 및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주시, 찾아가는 청렴 소통 활동 전개



부서별 맞춤형 특혜 방지
교육 중심으로 소통 활동

경주시가 23일부터 새달 11일까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85개 부서를 방문, 찾아가는 청렴 소통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렴 소통 활동은 청렴감사관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청렴 시책이다.

활동은 주요 청렴시책 공유, 부패모의 신고 훈

련, 직원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

지난 4월 실시한 심층 면접에서 나온 계약, 인사, 보조금 등의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혜 등 취약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청렴 저해 요인을 함께 진단한다.

류정희 청렴감사관은 "고위 간부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반으로 특혜 제공 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정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막자 행정 총동원

경주시, 질식소화포 시범설치
시민 화재 안전 한층 더 강화

경주시가 시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옆에 질식소화포를 시범적으로 설치, 전기차 화재 예방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초기 진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식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화 장비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인 열폭주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초기에 물로 진압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임에 따라 누구나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했다.

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즉각적인경보 알림과 화재 초기 진압 목적으로 청사내 화재감지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도 이달 완료했다.

시는 새달 전 직원 소방교육과 소방서와 연계한 합동 소방 훈련도 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주)코오롱 명예회장 성금

울릉군은 기록적 집중호우에
민·관·군 남녀노소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응급 복구에 나선 가운데
(주)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이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고 밝혔다.

코오롱 그룹 제3대 회장을 지냈
던 이웅열 명예회장은 1995년 코
오롱 그룹 회장직에 올라 1990년
대 후반, 젊은 기업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인으로 2018년 회장
직을 사퇴하며, 현재 코오롱 명예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울릉군에 고
향사랑기부금 최고한도액인 500
만원을 쾌척하며 "집중호우로 피
해를 본 울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
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청소년 안전망 회의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일 포항 화진해수욕장에서 청
소년복지실무위원 및 관계자 16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안전망 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
스 제공에 대한 연계 활성화를 위
해 청소년 현장의 실무자들로 구
성된 위원회이다.

청소년안전망 3차 청소년복지실
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은둔 청소년
및 느린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 연계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였
으며, 고위기 청소년과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시, 여성 한마음대회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영천체육관에서 최기문 시장을 비
롯해 각 기관단체장, 여성단체 회
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양성평등 기념식 및 여성 한
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 영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 1부에서는 각 단체
기 입장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
공자 및 여성단체 활성화 유공 단
체에 대한 시상, 양성평등 실천 결
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등이 진행
됐으며, 저출생 극복 기부금 100
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2부에서는 여성단체 회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체육경
기 및 각 단체별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은하 기자

영덕 '문화유산야행' 4년 연속 國유산 사업 선정

작년 1만여명 방문 성과 이뤘
다음달 8가지 테마 행사 준비
무대 공연 참가팀 공개 모집

영덕군은 최근 발표된 국가유산청 공모 '2025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중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으로 국가유산 야행 사업,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
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총
138건을 선정했다.

그중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전국 총 47곳이 선
정됐는데 경북에서는 영덕군 포항, 경주, 문경, 청
도 등 4곳이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영덕군은 작
년에 이어 4년 연속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선정되
는 쾌거를 이뤘다. 작년 우천 중에도 1만여 명
이 방문한 2023영덕문화재야행의 성과를 바탕으
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2024영덕문화유산야행
은 '영해1924, 그날 밤을 거닐다'라는 부제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영덕군 영해면 옛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영덕 문화유산 야행은 100년 전 번성했던 영해
거리를 복원, 영해 근대민속촌으로 조성해 영덕군
의 귀중한 근대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
고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이다. 올해도 여덟가지 색다른 밤 풍경, 8야(夜)를
테마로 22가지 프로그램이 사흘 밤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옛 복장으로 근대역
사문화공간을 안내할 군민 배우와 근대의상 퍼레
이드 참가자, 예주키바레, 곡마단 등 무대 공연 참
가팀을 공개 모집해 영덕군민으로 구성하는 등 군
민과 함께하는 야간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
를 다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4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
에 선정된 만큼 올해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사흘 밤을 채웠다"며 "관내 외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영덕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즐겨주셨으
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이 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가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
화, 관광,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야간 특
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단

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4영덕
문화유산야행은 10월 3일부터 5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일원에서 펼쳐
진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s://ydcct.org/>)와 재단 인스타그램, 영덕관광
포털 스테이영덕(<https://ydstay.kr/index.do>)에
서 확인할 수 있고 관광마케팅팀(054-730-5852,
5882)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 호우 대비 모니터링... 선제 대응 강화

21일 전부서 비상 1단계 근무 재난취약지 예찰 활동 강화

포항시에 20일부터 22일 오전 9시 기준 평균
130.4mm(최고 오전갈평 167mm)의 많은 비가 내
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강수대
발생과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지난 20일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21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전부서 비상 1단계 근

무에 돌입했다.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근무자를 격려하고,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 및 통제구간은 반복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은 반드시 선
제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계곡,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
역, 해안 저지대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
전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우려지역 주민을 직접 방
문해 주민대피안내를 홍보하고 안전 취약계층 11
세대 15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다.

이와 함께 시는 계곡과 해수욕장 입수자를 통제

하고, 방파제·스카이크리크 산책로 및 현상강변 둔
치주차장 진입로 등을 차단해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일부 침수 도로와 토사 유출 등 피
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급 복
구를 완료했다. 22일 오전 현재 포항시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으며 집중호우로 대피
했던 주민들도 전원 귀가 조치됐다. 통제됐던 일부
구간의 도로도 대부분 통제가 해제됐다.

한편 이번 비로 7월 장마철 이후 포항 지역에 이
어지던 가뭄과 녹조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울진사랑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울진군장학재단은 지난 19일 울진군청 대회의
실에서 2024년 울진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학업우수자 및 학
업성취도 향상자 등 관내고등학교 총 47명에게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울진사랑 장학금은 고 1,2,3학년
인원 제한 없이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전국연합학
력평가 성적우수 기준(영·국·수 등급합계 3~4등
급은 100만원, 5~6등급은 50만원)으로 지급하는
학업우수장학금과 학업성취도 향상자 등(학교장
추천, 1인당 50만원)에게 지원하는 희망장학금 2
종류이다.

손병복 이사장은 "관내 고등학생들이 선의의 경
쟁을 통한 성적향상과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학사업의
다각적인 재검토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
겠다"라며 울진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지속적
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둘째 아
이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744명에게 다자녀 장
학금 3억7천2백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
으며, 8월에는 대학생장학금 1차분을 1,019명
에게 15억3천2백만원 지급하였다.

대학생장학금 2차분은 1차 미접수자 및 복학생
중 동일 학년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지
급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양 천궁'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국 최대 주산지 명성 재확인 영양군, 상표 독점적 권리 확보

영양군은 '영양 천궁'이 천궁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함으로써
전국 최대 천궁 주산지의 명성을 재확인함과 동시
에 상표 사용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수축산물이나 가공
품의 품질·명성 등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인
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배타

적인 권리를 인정·보호하는 제도이다.

영양군과 (사)토종명품화사업단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영양천궁'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특허청
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사)토종명품화
사업단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 소속 천궁재배 농가(현재 107
명)들은 향후 독자적인 브랜드 사용을 통한, 차별
화된 마케팅으로 영양천궁의 우수성을 한층 부
각할 수 있게 되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8282민원처리사업' 벤치마킹 호응

월 220 가구 600여건 해결 매달 경로당을 방문 홍보

청송군은 2023년 1월 8282민원처리팀을 구성,
전국 최초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송군은 월
평균 220 가구 600여 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청송군의 8282민원처리서비스
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전국 지자체에서 쇄도하
고 있다. 충북 단양군, 전남 순창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대구 군위군, 경북 영주시 등에서 청
송군 8282민원처리사업을 벤치마킹해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울릉군 생활민원인속처리
반이 청송군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방문하였
다. 울릉군 관계자는 "오늘 청송군 8282민원처리
팀과 함께 민원 현장을 다니며, 단순 기술적인 부



윤병문 기자

영덕 관광 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현장 적용 실무 위주 구성 영덕DMO 활동 기반 확장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4지역관광추진조
직(DMO)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영덕DMO 관광
마케팅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기획, 교육생을 모
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회의실(영덕군
영덕읍 아성길 67, 2층 구 영덕먹거리센터)에서 오
는 9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회차로 진행되
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내용은 △최신 여행 트렌드와 지역관광의
미래, △관광객 응대와 커뮤니케이션, △관광 SNS
마케팅 1부, 2부, △지역관광 콘텐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실천 홍보 전략 등 현장에서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육 대상은 관광 관련 숙박, 식음, 체험 업체 외

에도 영덕 관광에 관심이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까지이며 영덕문화관광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QR코드를 스캔, 접
수하거나 전화(054-730-5853) 또는 재단(영덕군
영덕읍 아성길 67, 3층 구 영덕먹거리센터)으로 직
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 관광마케팅 교육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광마
케팅팀(054-730-5853)으로 문의 가능하다.

재단 DMO사업 담당자는 "이번 관광마케팅 역
량 강화 아카데미는 영덕DMO 각 분과원들의 교
육으로 기획했지만 주민 참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마케팅 중심 교육으로 향후 영덕DMO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나아가 영덕 주민들이 영
덕 관광의 홍보대사가 되어 한 분 한 분이 활약하
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여은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고령군 학교폭력 예방 홍보

고령군에서는 지난 20일 고령중학교 정문에서 학생 및 교사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계몽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계몽 운동에는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령경찰서, 대가야읍자율방범대, 학생회 임원 및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몽운동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친구사랑 홍보물과 학교폭력예방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주며 응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고령군은 "저출산 위기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고령군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잡기대회

구미시가 주최하고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한 '2024 구미시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21일 금오산 도립공원 금오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이했으며, 하천과 호수에 정착해 토종 어류와 그 알을 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외래어종(블루길, 배스 등) 퇴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낚시 동호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약 200kg의 유해 어종을 포획했다. 순위는 총중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1위부터 3위까지는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탄소중립 목표 중간보고

칠곡군은 지난 20일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칠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경상북도 기본계획과 연계해 칠곡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칠곡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칠곡군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5개 부문 14개 실천 과제, 42개 세부 이행과제와 환류 체계 등이 포함됐다.

구미 물류 보관 창고... 청년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문화가 있는 산단 시범사업 선정
내달 4일 구미산단 페스티벌 개최
축제 후, 매주 금토 미디어 아트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끌어온 구미산단은 최근 시설 노후화, 청년 근로자 감소, 문화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으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구미문화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구미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미에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9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마련됐으며, 구미산단을

청년들이 살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은 10월 4일 구미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단동 보세장치장 일원(1공단로 198-14)에서 진행된다.

과거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원과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되던 보세장치장은 이제 '보세문화전시장'으로 변모하여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근로자들의 기숙사와 사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퇴근 후 근로자들이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새달 4일 열리는 구미산단 페스티벌은 '구미에 산단은(산단)은' 자부심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

식에서는 김창완 밴드와 불고기디스코 밴드가 공연하며, 40여 명의 산단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합동 퍼포먼스 '춤추자! 산단사람들이 펼쳐진다'.

5,6일에는 '비움과 채움'을 테마로 거리예술, 산단택(EDM), 미디어아트, 예술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은퇴 근로자들을 위한 초청 만찬과 산단 리서치, 아카이브 전시 등도 마련돼 근로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축제 이후, 보세장치장 A·B동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산단-팝'과 미디어아트 공간 '빔'이 운영된다. 산단-팝은 청년층에게 신선함을, 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선사

하며, 산단-빔은 다양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산단-팝'은 서울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못지않은 매력을 제공하고, F&B로 운영되는 A동은 지역 상가와 협력하여 경제적 활력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산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산단의 가능성을 입증하여 내년에 문화산단 추진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구미문화재단 홈페이지(g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미문화재단 문화산단TF팀로 하면 된다.

고령 세계유산축전, 가야의 유산을 기억하다

다음달 6일까지 전시 행사
전체 10개 프로그램 구성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이 23일부터 내달 6일, 총 14일간 지산동 고분군 및 대가야박물관을 중심으로 대가야읍 일원에서 펼쳐진다.

2024 고령 세계유산축전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의 가야고분군 중 하나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잊혀진 가야문명, 가야고분군으로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가치향유 프로그램 5개, 가치 확산 프로그램 5개로 전체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그 중 4개는 상설 운영, 6개는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 및 공휴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설 프로그램은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 내가 쓰는 대가야사(野史), 대가야미스터리(무덤의 비밀), '빛의 대가야' 프로젝트가 있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등재1주년 기념식, 금림왕릉 발굴조사 고유제, 지산동에 빠지다, 토크콘서트, 대가야의 향연, 가야금대병창이 있다.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고분군 투어를 하며 고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산동 고분군에서 즐기는 야의 추리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의 추리게임은 유료로 운영되며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 예약을 놓친 분들을 고려해 현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지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가야 토기 제작 체험, 가야금 안축 팔찌 만들기, 대가야 유물 스트링아트, 가야왕관 만들기, 대가야 LED 감성 무드등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으며 각 체험마다 2,000~7,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대가야박물관 앞 행사장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고령,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경북고령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관내 초·중·고 희망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원장 및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영태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등의 중독현상에 대한 원인을 뇌과학과 실례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와 디지털 세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뇌과학을 접목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김효상 교육장은 "급변하는 AI-디지털세상에 살아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스마트폰 등의 중독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도보건소, 외래산부인과 운영

청도군은 임신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전 화학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 효성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도군보건소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해 지난 3년 동안 1,31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청도군보건소 외래산부인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임신부 산전·산후 진료 △태아 기형아검사 △산후부부 건강검진 등 임신·출산 전후의 모든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까지 진료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 항목을 추가해 임신부 등 면역력이 낮을 경우 흔히 발생하기 쉬운 여성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원거리 병원까지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역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희망 청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 K보듬 6000 제1호점 현장 점검 나서

아이 돌보는 24시간 서비스
하양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경산시는 지난 13일, 경산시 하양지구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위치한 K보듬 6000 제1호점을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생분부 부서장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과 함께 방문, 현장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K보듬 6000 제1호점은 경북도 돌봄 브랜드로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한 첫 시범 운영 시설이다. 오는 9월 말, 경산시에서 경북 최초로 제1호점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경산시는 K보듬 6000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시설 내 안전시설을 보장하고, 통합 안심길 조성을 비롯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령대별 특화된 기자재를 마련, 활동 여건을 조성



했다.

지역 대학생, 어르신, 돌봄교사, 아파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파트 내 공동 육아 나눔터, 실내 체육관, 에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연계하여 온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윤희란 경산부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도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K보듬 6000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립도서관, 휴면 도서·지난 잡지 무료 배부

아이 돌보는 24시간 서비스
하양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경산시는 지난 13일, 경산시 하양지구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위치한 K보듬 6000 제1호점을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생분부 부서장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K보듬 6000 제1호점은 경북도 돌봄 브랜드

로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한 첫 시범 운영 시설이다. 오는 9월 말, 경산시에서 경북 최초로 제1호점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경산시는 K보듬 6000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시설 내 안전시설을 보장하고, 통합 안심길 조성을 비롯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령대별 특화된 기자재를 마련하여 활동 여건을 조성했다.

지역 대학생, 어르신, 돌봄교사, 아파트 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파트 내 공동 육아 나눔터, 실내 체육관, 에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연계하여 온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희란 경산부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K보듬 6000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주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대회 개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성주소방서는 20일 수륜면 솔가람 어울림마당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 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

향상 등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수관볼링, 개인장비작용&릴레이 및 한마음 한방향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김두형 소방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더불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석영관 성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성주소방서의 안전을 위해 함께 애쓰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번 행사가 대원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영주시민체육대회 성료

영주시는 지난 20일 시민운동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동하고 화합하는 '제45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19개 읍면동, 24개 학교, 5개 직장·단체 등에서 출전한 24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했다.

시민체전에서는 육상,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호, 게이틀볼, 피구, 한궁, 배구, 족구, 테니스, 홀라후프 이어달리기, 중량들고 달리기, 기관단체장 이어달리기, 장기, 바둑 등 17개 종목이 펼쳐졌다.

시는 시민안전과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에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해 참석자들은 시민운동장 앞 사전 둔치 임시주차장 등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대회는 우천 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시민 모두 생활체육을 즐기며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청기와솔불촌 식품 기부

청기와솔불촌 대표 이춘호는 지난 19일 이안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한우국거리(100만 원 상당)를 후원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번 후원을 해주신 대표님은 이안면 출향인으로 "평소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고 21일 이안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경로당 안전관리 및 행복프로그램 행사에 점심식사로 제공해달라"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이춘호 청기와솔불촌 대표님은 평소 사업장 소재지 함창읍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착한 나눔가게 및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점근 이안면장은 "이안면 어르신들을 위하여 후원을 해주신 청기와솔불촌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행사 주최 단체에 후원물품을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의성군, 가바 성분 포함 '금탑' 쌀품종 해외 수출

호주·캐나다 선적 물량 33톤
서의성농협, 누적 129톤 수출
올해 지역 계약재배 18ha 규모

의성군은 지난 11일 서의성농협 유통사업소에서 일품쌀 수출선적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호주, 캐나다로 수출되는 선적물량은 33톤으로 현지 교민들에게 고품질 쌀 맛을 제공하게 된다.

서의성농협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에 수출한 이래 매년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가바쌀, 우렁이쌀 등 총 12회에 걸쳐 129톤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서의성농협의 수출 주력 상품인 가바쌀은 올해 의성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18ha) 통해 생산된 영남대학교 산학 연구팀이 개발한 '금탑' 품종으로, 가바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가바쌀은 뇌 활성화 물질인 GABA(대사기능 촉진 신경안정물질) 성분이 많아 신장기능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도와 혈당화 효소를 정상화해 당뇨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



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진쌀은 경북 6대 우

수 브랜드쌀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가진 쌀이다"라며, "안계대인들의 황토흙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재배한 쌀로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정부 예산 확보 적극 건의

현안 사업 국비 필요성 전달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건의

안동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8월 초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9월 20일, 한 번 더 국회를 찾아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형동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유영하 국회의원 등을 만나 안동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

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센터 건립 21억 원, 백신바이오파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6억 원, 안동호 내수면어업 피해 보상 50억 원, 안동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13억 원 등을 요청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동호 물길재현화 사업 관련 안동호 복합레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계획 선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통과도 건의했다.

이어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21세기 인문기초포럼 국제화 및 정례화, 바이오 백신 소부장 실증테스트 지원뿐 아니라, 국립 증가 문화원 건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권기창 시장은 "안동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일부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을 중점으로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천 공채농요 정기발표회

'제29회 예천 공채농요 정기발표회'가 2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채농요 전수교육관에서 열렸다. '예천공채농요'는 매년 정기발표회를 통해 잊혀져 가는 농요와 농경문화를 소개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모심기 소리 △논매기 소리 △갈채소리 △잘개질(타작) 소리 △칭칭이 소리 등 다섯 마당 전 과정을 선보이며 우리 농요의 멋과 흥을 전했다.

식전 공연으로 풍양농가주부물품단의 풍물공연에 이어 풍양민요보존회 공연, 부산수영농청놀이 공연, 구미발갱이들소리 공연도 이어져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전통 농요들을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박상진 문화관광과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오래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안동,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꿈과 끼의 발현을 통해 자아성취감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안동시 관내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와 공동으로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시행한다.

안동시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는 2011년부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10월 3일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메인무대(구, 안동여철길)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시내의 청소년 동아리들이 총출동하여 끼와 재능을 펼쳐보일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공연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 밴드 동아리들의 무대를 중심으로 댄스 동아리와 이외 청소년 공연 동아리도 함께 하여 흥겨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어 청소년과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청소년들이 축제속에 주인이 되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는 청소년들이 평소 학업에 대한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1318 청소년한마당 축제가 지역 청소년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안동시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봉화군, 취약 생활여건 개조 사업 2곳 선정

도촌1리 사제·분천2리 능호
4년간 총사업비 39억 원 확보

봉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도촌1리 사제마을과 분천2리 능호마을'이 최종 선정돼 총국비 27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촌1리, 분천2리 일원에 국비 27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대비해 올해 2월부터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앙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봉화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 원(국비 27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확보해 도촌1리

사제마을과 분천2리 능호마을에 노후주택개량 및 마을 안길정비, 안전확보 등 기반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촌1리, 분천2리 일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정비사업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앞으로는 취약지역 대상마을을 발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지질공원 생태탐방 프로그램 실시

남부초교 4,6학년 29명 대상
제오리 공룡발자국 등 체험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0일 남부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의성 지질공원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의성 국가 지질공원의 주요 지질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영



되었다. 탐방코스는 빙계계곡, 제오리 공룡발자국, 의성예코센터, 조문국박물관 등의 의성 국가지질공

원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의성군 지질공원 해설사 2명이 동행하여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제공했다. 군은 지난해 6월 행정구역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준받았으며, 안계분지와 제오리 공룡발자국을 비롯해 빙계계곡, 금성산 등 모두 12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의결
청사 건강관리실 제공 논의

의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2024 YEONGJU PUNGGI
경북영주 GINSENG FESTIVAL

풍기 인삼 축제

2024.10.05.토
— 9일간 10.13.일

장소 |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및 남원천 일원

주최·주관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영주시

문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054)639-6612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